

예수님 이야기

① 예수님의 탄생

나 레 이 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언니(누나)와 요셉오빠(형)가(이)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언니(누나)와 요셉오빠(형)는(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죠.

그러던 어느~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훅! 나타났습니다.

마 리 아 어머!? 누..누구세요?

가 브 리 엘 마리아여~~~ 겁내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대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세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을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전 영원히 다스리실 거예요!!

마 리 아 임신이요???

아직 결혼도 안한 제가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나요???

가 브 리 엘 성령하나님 아시죠? 성령하나님께서 마리아 그대에게 오실 거예요!
성령하나님께서 함께하실테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기대만 하고 계시면 되요!!

마 리 아 성령하나님 말씀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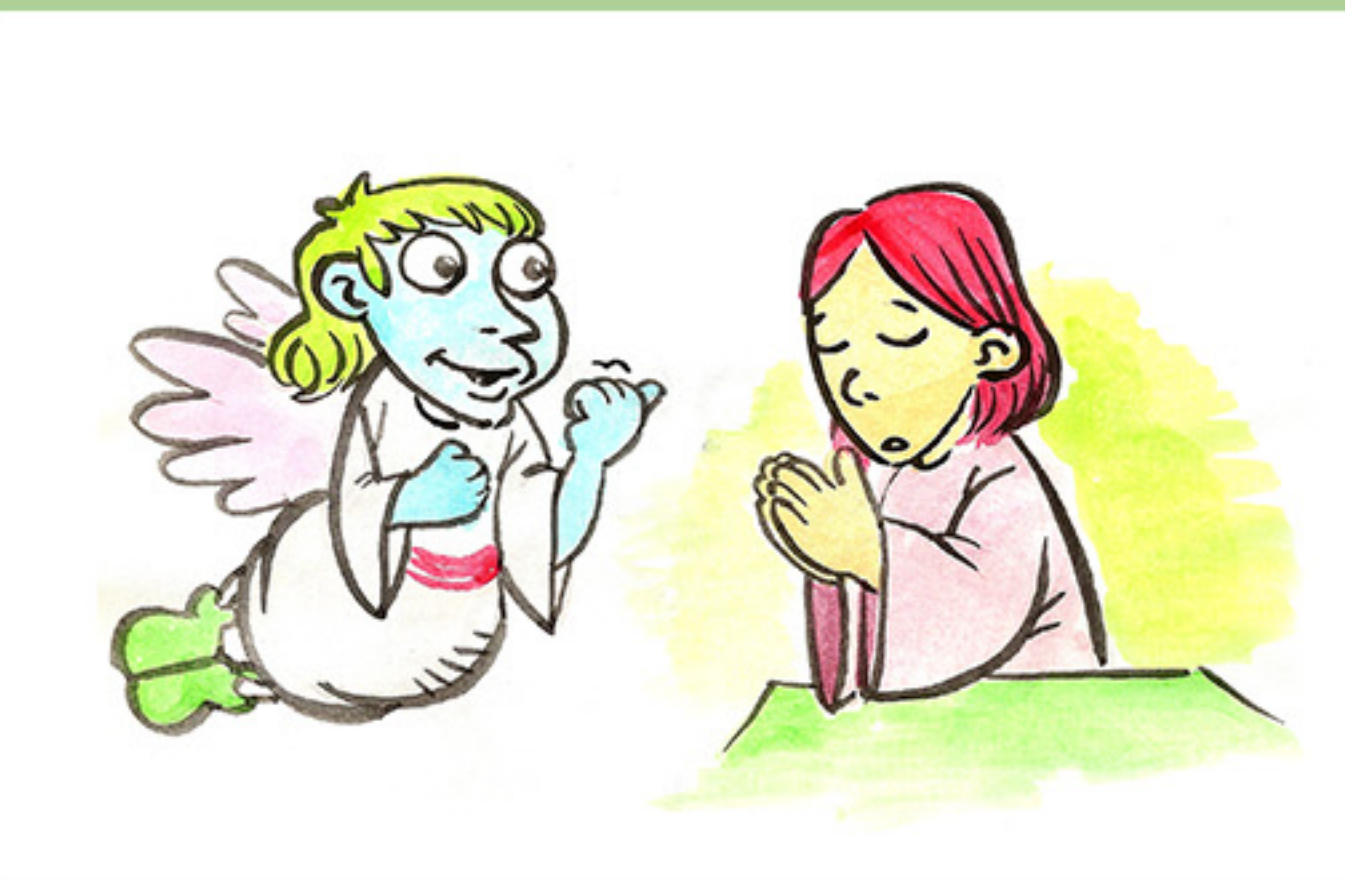
우와! 아멘! 성령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가 브 리 엘 자 그럼 전 바빠서 이만~! 영차! 영차!

See You Again~!

나 레 이 셴 얼마~후! 성령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요셉 아.. 이거 뭐야.. 와.. 진짜... 난 아닌데.. 누구 애기지?
아.. 나.. 진짜 마리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번엔 가브리엘 천사를
요셉의 꿈속으로 보내셨어요.

가브리엘 (하품) 아 오늘 내가 야간당직이구나?
왜들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다니까...
나도 한~참 꿈나라였는데 요셉의 꿈나라로 들어가볼까?
요셉~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기 이름도 주셨어요.
바로 임마누엘! 따라해보세요. 임! 마! 누! 엘!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뜻입니다.



나레이선 요셉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그날 이후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했어요!



얼마~후! 마리아와 요셉은 전국민 인구 총조사를 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 으악~ 어떡해!! 아악~ 도와주세요!! 아기가 나올 것 같아!!
으악~ 나 살려~



요셉 알겠어!! 마리아!! 잠깐만 기다려!! 빈 방이 있을까요?!!
방 좀 주세요!!! 제 아내가 아기를 출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먼 길을 왔는데, 제 아내가 누울 수 있는 방이 필요합니다!!
헛간이라도 괜찮습니다!! 방 좀 주세요!!!

여관주안(여) 지금은 빈 방이 없는데?

여관주안(남) 예약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해???

나레이선 요셉과 마리아는 편하게 쉴 수 있는 방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말들이 사는 냄새 나는 마구간이라도 허락을 받아 몸을 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들이 사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응애~응애~응애~

요셉 마리아, 너무 수고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레 이 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잠시~후!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보고 찾아와 아주아주 진귀하고
값비싼 보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습니다.
가 브 리 엘 자~ 모두 박수~!!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는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지중해 해안에서 갈릴리 호수까지 포함된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산간 지방을 거쳐 북으로 약134km 지점, 갈릴리 산간
지방에 속하며 산간의 분지로 해발 약375m이다.